

# 자녀에 대한 가치관

—어머니와 딸 두세대간의 비교연구—

## Value of Children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 Daughter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박 성 연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 Seong yeon Park

<目 次>

I. 문제의 제기

II. 연구방법

1. 피험자

2. 측정도구

3. 연구절차

4. 통계분석

III. 연구결과 및 해석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relationship of attitudes of mothers and their daughters concerning the value of children. The secondary interest was to compare this study with the American studies done by Bormann & Stockdale(1979), and Leavy & Hough(1983). Subjects for the study were college-age daughters, their married sisters, and their mothers. The "Fawcett Opinions about Children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beliefs about children.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s were computed for mother-daughter(married), mother-daughter(unmarried), and daughter(married)-daughter (unmarried) on each of nine subscales on value of children. To study the generation differences and marriage differences, matched sample t-tests were carried.

Several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for mother-daughter (married), daughter(married)-daughter (unmarried) pairs. Only one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for mother-daughter(unmarried) pair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mothers' group and daughters' groups on most subscales except one or two (generation effec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married daughters and unmarried daughters on 4 subscales(marriage effect). The results did not corroborate the findings of American studies which revealed the lack of congruence between mother and daughter attitudes. It was noted that as daughters had children themselves, their attitudes toward children had become more congruent with their mothers. There was also evidence to support the generation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values. It was concluded that both value similarity and generation differences vary as a function of the particular events as well as age-itself.

## I. 문제의 제기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연구는 인구증가나 출산 동기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한편(Arnold et. al., 1975; Collan, 1980; Hoffman & Manis, 1979; Lee & Kim, 1975), 가족간의 상호작용이나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Leavy & Hough, 1983; Bormann & Stockdale, 1979). 특히, 동세대, 2세대, 3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나 유사성에 관한 연구는 가치관의 차이가 모 든인간관계에 있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화과정을 통해 부모로부터 사회적인 가치나 태도등을 물려받는다(Maccoby, 1968). 따라서 부모 자녀간에는 이와 같은 가족적전이 (family transmission)로 인해 가치관이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한편 Bengtson(1975)은 가치의 사회화는 부모와 자녀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속에서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적인 과정 (bilateral process)이라고 결론짓고 있어 가치관의 유사성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Bengtson 와 Troll(1978)은 가정이 가치의 사회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mechanism 이긴하나 동료집단이나 사회역사적사건 (socio-historical events), 개체 발생적인 상태 (ontogenetic status) 가 요인이 되어 세대간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므로써 여러요인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논문들을 살펴보면 Troll, Neugarten, 과 Kraines(1969)은 대학생자녀와 부모사이에 가치관과 성격적 특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하므로써 가치체계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전이된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 종교, 행복, 자기실현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생관을 연구한 Thurner, Spence, 와 Lowenthal(1974)은 세대간의 유사성을 발견하였으

며 Thomas(1971)는 정치적 태도에 있어 부모와 대학생 자녀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 내었다. Wheeler 와 Oles(1979)은 자식을 갖는 이유에 대해 남녀대학생과 그들 부모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Kalish 와 Johnson(1972)은 3세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문제에 관한 가치관과 노인학적 가치관을 연구한 결과, 가족원들은 대체로 상당히 유사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문제(예 : 죽음, 노화)에 대해서는 노인세대와 젊은세대가 낮은 관심도를 보여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중간세대인 어머니층에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므로써, 세대차이란 각 개인이 처해있는 시기에 겪고있는 문제와 함수적인 관계를 갖고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맥락에서 Bengtson(1975)은 3세대의 인생관을 연구한 결과,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젊은세대, 모두가 대체로 비슷한 인생관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Humanism/Materialism 영역에서는 연령집단에 따른 곡선적 경향<sup>1)</sup>을 나타내므로써 개인의 가치 체계는 가족적요인, 즉, 가족을 통한 가치의 직접적 전달 (family transmission)이나 세대적요인 (generation effect)보다는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나 사회역사적사건 (socio-historical events)에 대한 특수 반응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Hill(1970)은 인생관과 자녀관에 관한 3세대 연구에서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 사이에는 운명론적 견해, 신중성, 낙관주의, 현실적인생관과 전통적 자녀관에서 비슷하였으며, 젊은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훨씬 더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중간세대인 부모세대는 조부모세대와 젊은세대의 가치관이 다소 혼합된 형태의 가치관을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Bormann 과

1) 젊은 세대와 조부모세대는 Humanism 이 강했고 부모세대는 materialism 의 경향이 농후했는데 이러한 관계는 중간세대가 실제로 가정의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Stockdale(1979)은 자녀에 대한 가치에 관해 어머니와 대학생 딸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VCC(Value of Children)(Arnold et. al., 1975) 질문지의 9개 하위척도 중에서 어떤 것에서도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해 내지 못해서 Wheeler와 Oles(1979)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어머니와 대학생 딸 간에는 자녀에 대한 가치지향이 상당히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Leary와 Hough(1983) 역시 VOC(Arnold et al., 1975)를 사용하여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들과 그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부간, 같은성의 부모간에 일치도정도를 연구하였는데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사이에서 거의 가치관의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관의 세대차를 연구한 논문들 중에서 특히 본논문의 관심이 되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다룬 논문들은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극히 드물었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가족내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가치가 전달된다는 일반적인 가정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볼때, 가치의 본질 즉, 어떠한 이슈(issue)에 대한 가치관이나에 따라 세대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Bengtson(1975)이나 Bengtson과 Troll(1978)이 주장하였듯이 개체발생적 상태(ontogenetic status)나 사회역사적 사건(socio-historical events)이 요인이 되어 세대차가 생길 수 있다면, 같은 세대라도 개인이 겪은 경험에 따라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세대라도 경험여부에 따라 유사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대간의 유사성이나 차이정도는 문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영역의 가치중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국한시켜서 어머니와 딸 두 세대간의 자녀가치관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밝혀보고자 한다. 본연구는 결혼 또는 자녀양육이라는 경험변인은 고려하지 않은 Bormann과 Stockdale(1979)<sup>2)</sup> Leary와 Hough(1983)<sup>3)</sup> 연구의 방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설계를 달리하므로

써 과연 그들의 연구결과대로 부모-자식간에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유사성이 없는지를 재확인하는데도 의의를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와 기혼딸, 미혼딸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한가?
- 2) 어머니와 딸간에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유사성이 있는가?
- 3)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세대 및 자녀양육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피험자

본 연구를 위한 피험자는 여대생과 그들의 기혼 언니, 어머니로 구성된 44쌍의 여성들이었다. 여대생의 평균연령은 21.7세, 기혼언니는 28.2세였으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53.6세였다. 연구설계상 결혼과 자녀양육의 경험효과를 보기위해 기혼 언니의 경우는 반드시 자녀를 한명 이상 둔 여성으로 제한한 한편 세대의 효과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여대생과 연령차가 적게 나도록 피험자 선정에 유의하였다. 피험자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어머니집단의 경우 대부분이 고졸이었고(61%) 기혼딸 집단은 대부분 대졸이었으며(73%) 미혼딸들은 대학에 재학중이었다. 이들의 연령, 교육정도, 자녀수 분포는 <표 1>과 같다.

### 2. 측정도구

어린이를 낳아 기르는데 대한 가치관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Fawcett value of children(VOC) 질문지(Arnold et. al., 1975)를 사용하여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하였다. VOC 질문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간의 차이를 연구하기위해 만들어진 측정도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Lee와 Kim(1975)에 의해 연구되었다. Lee와 Kim(1975)의 연구에서는 VOC가 6개의 하위척도로 요인분석되었으며 45개 문항이 포함되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Arnold et al.,(1975)의 연구에서 쓰인대로 9개의 하위척도에 31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31개 문항의 리커트

2) 어머니와 미혼 대학생딸을 대상으로함

3) 60대 조부모와 30대 부모를 대상으로함.

〈표 1〉 피험자의 연령, 교육정도, 자녀수

집 단	N	연 령		교육정도	자 녀 수	
		Mean	SD	Median	Mean	SD
어 머 니	44	53.6	4.65	고 졸	4.8	1.26
기 혼 딸	44	28.4	2.53	대 졸	1.4	0.58
미 혼 딸	44	21.8	1.78	대 재	—	—

형 척도는 다음과 같은 9개 차원을 측정하고 있다.

척도 1; 연속성/전통성/안정감 (Continuity, Tradition, Security)

자식은 부모의 대를 잇고, 영생의 느낌을 주며 노부모를 부양해주기 때문에 자식을 갖는다는 견해로된 5문항

척도 2; 부모로서의 만족감(Parenthood Satisfaction)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목적의식이나 성취의 기쁨을 준다는 내용들로 구성된 3문항

척도 3; 역할동기(Role Motivation)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성숙했다는 느낌을 주며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을 준다는 내용의 5문항

척도 4; 행복감/애정(Happiness and Satisfaction)

자식을 기르므로써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3문항

척도 5; 목표/의욕(Goals and Incentives)

자식은 인생의 목적의식을 주고 부부간의 결속을 굳게 해준다는 견해로된 3문항

척도 6; 사회적지위(Social Status)

자식을 낳으므로써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내용의 2문항

척도 7; 외부적인 압력(External Control)

가족이나 사회의 압력, 또는 자연의 섭리이므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갖는다는 견해로 된 2문항

척도 8; 자식으로 인한 부담(Costs of Children)

자식은 부모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4문항

척도 9; 신중한 결단의 문제(Decision-Mindedness)

자식을 갖기전에 재정문제나 직장문제, 시간제 약등을 미리 염두에 두어 고려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4문항.

VOC 질문지는 가족계획이나 원하는 가족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일 수 있어 예언타당도가 증명되었다(Arnold et al., 1975). 이들은 신뢰도를 검증하지 않았으나 Leavy Hough(1983)는 VOC 각 하위척도에 대해 0.83~0.46범위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보고하여 VOC를 신뢰로운 척도로 인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 하위척도별로 문항간의 일치도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VOC의 내적일관성 정도를 나타내 주는 신뢰도 계수는 하위척도 7을 ( $\alpha=.19$ ) 제외하고는 .47~.78에 이르고 있어 비교적 신뢰로운 척도라고 판단되었다. 하위척도 7(외부적인 압력)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포함된 문항수가 적은데(2문항) 기인하기도 하며, 또한 두 문항중 한문항(예:부부가 자녀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므로써 자연의 섭리에 거역하는것은 옳지 않다.)의 적용이 종교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미국에서는 타당하나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국의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의 목적도 있었기에, 다음연구를 위해서는 수정되어야 할 문항이라는 전제하에 그대로 그 두문항을 포함시켰다.

### 3. 연구절차

VOC 31개 문항은 우리말로 번역한 후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장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VOC는 어머니와, 기혼이며 1자녀 이상을 둔 25~30세 사이의 언니를 가진 여대생에게 3부씩 배부되었으며, 서로 독립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당부 하였다. 배부 후 7~10일 사이

에 완성된 질문지는 대학생들을 통해 회수되었다. 전체 배부한 수는 70쌍이었는데 48쌍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분석에 적합치 않은 4쌍을 제외한 44쌍의 VOC 질문지만 분석하였다. VOC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에서 '전적으로 그렇다'까지 1~7점으로 된 리커트형 척도인데 Arnold et. al.(1975)의 7점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VOC의 9개 하위척도는 자녀에 대한 가치의 각각 다른 측면이므로 총합계를 내지않고 각각의 하위척도별로 합계를 내었다.

#### 4. 통계분석

세대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내의 유사성(Similarity within family)과 세대간의 차이를 correlation과 t검증방법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Kalish와 Johnson(1972)의 제안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두가지 방법으로 통계분석하였다.

첫째, 가족내에서의 어머니와 딸의 가치관의 유사성정도를 보기위해 각 하위 척도별로 어머니와 기혼딸, 어머니와 미혼딸, 기혼딸과 미혼딸 사이에 Pearson Correlation을 냈다.

둘째, 세대나 자녀양육경험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각 하위척도에 있어 어머니와 기혼딸, 어머니와 미혼딸, 기혼딸과 미혼딸 간에 paired t-test를 하였다. 상관분석이나 t-검증에서의 유의도 검증은 유의수준  $p < 0.05$  이상에서 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 기혼딸, 미혼딸 집단의 각 하위척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

어머니와 기혼딸, 미혼딸이 자녀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비교해 보기 위해, 편의상 1~7점까지의 원점수는 0~6점으로 환산하였으며 각 하위척도별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소숫점이 나오지 않도록 10배를 해주고 각 하위척도별로 평균을 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하위척도에서 어머니집단이 평균점수가 높고 기혼딸, 미혼딸 집단의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하위척도 1에서 6까지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머니집단이 젊은 세대집단 보다 전통적인 자녀관에 대해 보다 긍정적임을 나타내었다. 한편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나 하위척도 9(신중한 결단의 문제)에서는 그 순서가 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Levy와 Hough(1983)의 결과와 유사했다. 젊은 세대는 특히 하위척도 6과 7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외부적인 압력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자식을 갖는다는 견해에 부정적이었다. 하위척도 7(외부적인 압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문항의 문항내적 일치도가 낮아 각각의 문항을 따로 분석해 보았다. 그결과, 친지나 가족의 압력 때문

<표 2> 각 하위척도별 집단내 평균 및 표준편차

	어머니(N=44)		기혼딸(N=44)		미혼딸(N=44)		전 체(N=132)	
	X	SD	X	SD	X	SD	X	SD
척도 1: 연속성/전통성/안정감	44.80	8.30	31.73	9.53	28.00	9.94	34.84	11.71
척도 2: 부모로서의 만족감	44.02	9.34	36.11	9.47	29.59	10.46	36.58	11.36
척도 3: 역할동기	50.82	6.78	42.52	8.32	33.64	11.62	42.33	11.48
척도 4: 행복감/애정	44.73	9.58	34.50	12.69	26.91	9.66	35.38	12.94
척도 5: 목표/의욕	48.00	7.92	38.93	9.46	34.27	10.43	40.40	10.88
척도 6: 사회적지위	34.66	12.78	21.48	11.94	21.36	11.38	25.83	13.50
척도 7: 외부적인 압력	27.24	13.56	22.73	12.64	22.39	9.91	24.02	12.22
척도 8: 자식으로 인한 부담	38.05	9.24	34.02	9.40	34.68	9.23	35.58	9.39
척도 9: 신중한 결단의 문제	34.16	10.34	34.89	10.21	35.96	10.16	35.00	10.19

모든 척도의 점수범위는 0~60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 정도 가름.

〈표 3〉 각 하위척도에 따른 어머니, 기혼딸, 미혼딸 간의 상관 관계

	어머니와 기혼딸 (N=44쌍)	어머니와 미혼딸 (N=44쌍)	기혼딸과 미혼딸 (N=44쌍)
척도 1; 연속성/전통성/안정감	0.46***	-0.05	0.41**
척도 2; 부모로서의 만족감	0.32*	0.34*	0.46***
척도 3; 역할동기	0.01	0.07	0.17
척도 4; 행복감/애정	0.06	0.12	0.10
척도 5; 목표/의욕	0.10	0.23	0.35*
척도 6; 사회적지위	0.24	-0.09	0.38**
척도 7; 외부적인 압력	0.32*	0.07	0.17
척도 8; 자식으로 인한 부담	0.32*	0.22	0.21
척도 9; 신중한 결단의 문제	0.06	0.22	0.24

\*p&lt;.05 \*\*p&lt;.01 \*\*\*p&lt;.001

에 자식을 낳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어머니집단이 37.67, 기혼딸집단이 29.77, 미혼딸 집단이 30.00으로 나타나 역시 어머니집단이 보다 전통적임을 보여주었다. 두번째 문항인 자연의 섭리때문에 어쩔수 없이 낳게 된다는데 대해서는 세집단 모두 낮게 동의 하고 있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 : 17.05, 기혼딸 : 15.68, 미혼딸 : 15.83). 세집단 전체로 볼때는 하위척도 3 (역할동기)에 가장 크게 동의해서 ( $\bar{X}=42.33$ ) 자식을 낳으므로써 여자 또는 성인으로 완성된다고 보는 견해가 강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avy와 Hough(1983)의 연구에서 자식은 인생의 목표와 의욕을 준다 (하위척도 5)는데 가장 많이 동의한 것과 비교가 된다. 4) 반면에 외부적인 압력때문에 자식을 갖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가장 불찬성하고 있어 ( $\bar{X}=24.02$ ) Leavy와 Hough(1983)의 결과와 동일하다 하겠으나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 2) 어머니와 딸간의 가치관의 유사성

가족 구성원간에 가치관의 유사성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와 기혼딸, 어머니와 미혼딸, 기혼딸과 미혼딸사이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집단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것은 하위척도 2로서, 자식이 부모로서의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어

4) Leavy & Hough 연구; 척도 5, 8, 9, 2, 3, 1, 6, 4, 7의 순으로 찬성함

본연구: 척도 3, 5, 2, 8, 4, 9, 1, 6, 7의 순으로 찬성함.

머니나 딸이 모두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외에 어머니와 기혼딸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척도는 1, 7, 8이었다. 즉, 어머니와 기혼딸은 자식이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지 또는 자식으로 인해 여러가지 희생이나 부담이 따르든지 외부사람들의 압력때문에 자식을 갖게된다는지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64대 부모와 30대기혼자녀사이에 가치관의 불일치를 보고한 Leavy와 Hough(198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서, 미국의 젊은세대에 비해 우리나라의 젊은세대들이 비교적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한편, 어머니와 미혼딸사이에는 하위척도 2( $r=.34$ )를 제외하고는 모든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와 미혼딸은 거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전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던 Bormann과 Stockdale(1979)의 연구와는 다소 다르지만, 어머니와 대학생딸 간에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대체로 다르다는 점에서 일치되는 결과이다.

〈표 3〉에서 보면 어머니의 가치관과는 무관하게 기혼딸과 미혼딸사이에만 유사성이 나타난 것은 하위척도 5( $r=.35$ )와 6( $r=.38$ )이었다. 즉 20대의 딸들은 기혼이건 미혼이건 자식을 인생의 목표나 지위획득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어머니와는 다르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표 2, 표 3 참조). 한편, 하위척도 7을 각각의 문항으로 따로 분석했을

<표 4> 각 하위척도에 따른 어머니, 기혼딸, 미혼딸 간의 Paired t 검증결과

	어머니와 기혼딸 (N=44쌍)		어머니와 미혼딸 (N=44쌍)		기혼딸과 미혼딸 (N=44쌍)	
	$\bar{d}$	t	$\bar{d}$	t	$\bar{d}$	t
척도 1; 연속성/전통성/ 안정감	6.69	9.56***	8.56	8.49***	1.86	2.33
척도 2; 부모로서의 만족감	2.13	4.27***	4.09	7.51***	1.95	4.14***
척도 3; 역할동기	3.88	5.00***	8.59	8.72***	4.56	4.55***
척도 4; 행복감/애정	3.30	4.82***	5.41	9.44***	1.98	3.07**
척도 5; 목표/의욕	2.73	5.20***	4.00	7.74***	1.37	2.59**
척도 6; 사회적 지위	2.56	5.51***	2.62	4.77***	0.02	0.06
척도 7; 외부적인 압력	1.16	2.47*	1.26	2.72**	0.07	0.15
척도 8; 자식으로 인한 부담	1.72	2.72**	1.37	1.94	-0.27	-0.40
척도 9; 신중한 결단의 문제	-0.49	-0.59	-0.91	-1.17	-0.67	-0.86

\*p<.02    \*\*p<.01    \*\*\*p<.001  
여기서  $\bar{d}$ 는 원점수로 계산된 것임.

때는, 가족이나 친지의 압력때문에 자녀를 갖는다는 문항에 대해서 어머니와 기혼딸사이의 상관은  $r=.42$  ( $p<.001$ )로 상당히 유사했으며, 미혼딸 기혼딸사이에도  $r=0.25$  ( $p<.05$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결국 기혼딸은 어머니 또는 자기 여동생과 각 하위척도 별로 가치관의 유사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기혼딸이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므로써 어머니와 유사한 가치관을 갖게되는 한편 연령적으로는 동생과 거의 같은 세대에 놓여 있으므로 동생과 유사한 가치관을 갖게되는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결국,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가정내에서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가치관이 전달된다면, 어머니와 기혼딸, 어머니와 미혼딸의 상관관계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나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미혼딸과는 한 척도에서만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보아, 가족을 통한 가치관의 전이보다는 세대차이 및 자녀양육경험에 따른 유사성이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세대 및 자녀양육경험에 따른 차이

어머니와 딸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세대효과와 경험효과로 나누어 밝혀보기 위해 paired t-test로서 어머니, 기혼딸, 미혼딸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표 4>) 우선, 어머니 집단과 기혼딸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하위척도 9(신중한 결단의 문제)를 제외한 8개 하위척도에서 상당히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척도 9에 대해서 접

은 세대와 나이는 세대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던( $F=14.57$ ,  $p<.0001$ ) Leavy와 Hough(1983)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연구에서는 어머니집단과 기혼딸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것은 흥미롭다. 이와같은 차이는 두연구의 연구대상자중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다른데,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나(Leavy & Hough의 연구: 어머니 61.5세, 딸 33.3세, 본연구: 어머니 53.6세, 딸 28.4세), 문화적인 차이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과거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 길러왔고 그로 인한 희생과 부담이 컸었기에 우리나라 50대 어머니들은 미국의 60대 어머니보다 자녀에 대해 현실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자녀에 대해 훨씬 더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편안과 안락 위주의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두드러진 때분(Bormann& Stockdale, 1979)이라고도 풀이된다.

어머니와 미혼딸 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위척도 9를 제외한 거의 모든 척도에서 상당히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에서 보면 하위척도 8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p<.06$ 으로 거의 유의한 수준에 미치고 있었다.)

한편, 기혼딸과 미혼딸집단 사이에는 9개 하위척도중, 척도 2(부모로서의 만족감), 척도 3(역할 동기), 척도 4(행복감/애정), 척도 5(목표/의욕)

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네개 척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모두 실제로 자식을 낳아 기르므로써 얻는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아, 결혼 또는 자녀양육경험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그외에 척도 1(연속성 전통성/안정감), 척도 6(사회적지위), 척도 7(외부적인 압력)과 같은 전통적 동기에 대해서나, 척도 8(자식으로 인한 부담), 척도 9(신중한 결단의 문제)등 현대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척도 7을 따로 분석했을 경우에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압력'에 대해서는 세대간의 차이를 보였고(어머니와 기혼딸:  $t=2.71$ ,  $p<.001$ , 어머니와 미혼딸:  $t=2.34$ ,  $p<.02$ ) '자연의 섭리에 거역하는 일은 옳지 않다'에 대해서는 세집단 모두 찬성도가 낮았으며 집단간의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표 4>에 나타난 차이는 두집단 비교 모두에서 '가족이나 친지……' 문항에 의한 차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어머니와 딸 두세대간에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같은 세대인 딸 간에도 결혼 및 자녀양육 경험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동시에 어머니와 기혼딸사이보다는 어머니와 미혼딸사이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기혼딸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머니와 미혼딸사이의 가치관을 혼합해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같은 결과는 인생관에 대한 Bengtson(1975), Hill(1970), Kalish와 Johnson(1972)의 연구결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집단은 보다 전통적인 자녀관을 나타내 주는 항목에 대해 훨씬 더 전통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딸은 비교적 전통에 덜 얽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현실적이며 현대적인 자녀관을 나타내주는 항목(예, 척도 8과 9)에 대해서는 딸과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 50대 어머니들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동시에 현대적인 자녀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와 기혼딸, 기혼딸과 미혼딸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율을 보여 가치관의 유사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치관 사이에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계분석에서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차이점 증결과는 거의 모든 하위척도에서 어머니와 딸 집단사이에 유의한 세대차이를 나타냈다. 반면에 기혼딸과 미혼딸 집단사이에 4개 척도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4) 본 연구는 어머니와 딸 세대간에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고 보고한 미국의 두 연구(Bormann & Stockdale, 1979; Leavy & Hough, 1983)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문화권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는 한편, 두 연구 방법을 보완하여 세대요인 외에 딸세대를 기혼과 미혼으로 나누어 경험요인을 고려한 본 연구의 연구 설계로 인해 밝혀진 차이로도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세대간의 유사성이나, 차이는 단순히 가족적인 전이를 통한 가치의 유사성이나, 연령자체에 기인한 세대차이로서 보다는 개인이 속한 문화나 경험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수가 적었고 비교적 진보적인 견해가 강한 대학생가족이 그 대상이었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본연구는 미국의 선행연구들과의 비교 목적도 있었으므로 9개의 하위척도로 된 VOC(Arnold et. al., 1975)를 사용했는데 Lee와 Kim(1975)이 요인분석한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된 VOC를 사용했다라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을지 모른다.

앞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교육정도나 지역에 따른 차이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양육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rnold, F., Bulatat, R.R., Buripakdi, C., Chung, B.J., Fawcett, J.T., Iritani, T., Lee, S.J., & Wu, T. S.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Intro-*



- duction & comparative analysis*, Vol. 1, Honolulu, HI: East-West Center, 1975.
- Bengtson, V.L.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0, pp.358~371, 1975.
- Bengtson, V.L., & Troll, L. "Youth and Their Parents; Feedback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 in Socialization," In R.M. Lerner, & G.B. Spanier (Eds.), *Child influences on marital & family intera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 Bormann, C., & Stockdale, D.F. "Value of children: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8, 1979.
- Collan, V.J. "The value and cost of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11, pp.482-497, 1980.
- Hill, R. *Family development in three generations*, Cambridge: Schenkman, 1970.
- Hoffman, L.W., & Manis, J.D. "The valu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1, pp. 583~596, 1979.
- Kalish, R.A., & Johnson, A.I. "Valu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4, pp.49~54, 1972.
- Leavy, R.L., & Hough, O.B. "The value and cost of children cross-generational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pare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2, 1983.
- Lee, S.J., & Kim, J.O.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Korea*, Vol. 7, Honolulu, HI: East-West Center, 1975.
- Maccoby, E.E. "The development of moral values and behavior in childhood," In J.A. Clausen(Ed.), *Socialization & society*, Boston: Little Brown, 1968.
- Thomas, E.L. "Political attitude congruences between politically active parents and college-age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3, pp.375~386, 1971.
- Turner, M.J., Spence, D.A., & Lowenthal, M.A. "Value congruence between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6, pp.308~320, 1974.
- Troll, L., Neugarten, B.L., & Kraines, R.J. "Similarities in value and othe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Merrill-Palmer Quarterly*, Vol. 15, pp.323~336, 1969.
- Wheeler, R.W., & Oles, J., "Motives for parenthood; A comparison of students' and parents' values," *Psychological Reports*, Vol. 44, p.1074, 1979.